

초현실주의 Art Make-up에 관한 연구
-Body Painting 작품제작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Art Make-Up Based on Surrealism
-Focus on the creation of body painting works-

김순구 (Kim, Soon Ku)

동서대학교 디지털 디자인학부

본 논문은 동서대학교 교내 연구비로 연구되었음

1. 서론

- 1-1. 연구의 목적
-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초현실주의 회화의 대표적 기법과 작품

3. 아트 메이크업

4. 초현실주의 Body Painting

5. 작품

- 5-1. 작품제작의도 및 제작방법
- 5-2. 작품해설

6. 결론

참고문헌

(要約)

본 연구는 초현실주의적 사조가 현대조형예술에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규명하고 초현실주의의 입장에서 표현한 아트 메이크업을 제안하는 데 있다. 또한 초현실주의적 아트메이크

업을 표현함으로써 메이크업 또한 예술의 사조와 흐름을 함께 하는 예술적 존재라는 사실을 재확인하고자 하는 것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론고찰에서 얻은 결과를 작품을 통해 이론과 실체를 연결시켰다. 기존의 초현실주의 회화에서 모티브를 착안한 작품과 본 연구자가 초현실적 표현을 시도해 본 작품으로 제목은 다음과 같다. <작품1-DALI's expression>, <작품2-MAGRITTE's expression>, <작품3-ERNST's expression>, <작품4-첼로>, <작품5-ZIPPER>, <작품6-A DROP OF WATER>로 총6점을 제작하였다.

본 연구의 작품제작을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현실주의 회화에서 많이 보여지는 소재와 이미지를 응용하여 인체에 구성한 결과 현대적 조형감각과 선 감각이 표출되었다.

둘째, 색이나 표현, 주제, 기법, 재료 등에 구속받지 않고 예술적 이미지를 위한 아트 메이크업의 특성이 표출되었다.

셋째, 극히 주관적인 초현실주의 회화와 이념을 여러 각도로 응용하여 다양한 소재의 메이크업과 흥미로운 표현방법으로 인한 무한한 창작의 가능성을 부여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how modern formative art reflects surrealism and propose a Art Make-up expressed based on the trend. The study also aims at demonstrating the part that the Make-up based on surrealism is also an artistic being keeping pace with the trend of art.

For the purpose, the study reviewed related theoretical backgrounds and works as manufactured.

Based on these theoretical backgrounds, the author manufactured works of his own, realizing the combination between theoretical and practical aspects. Those works were motivated from existing surrealist paintings or otherwise made surrealistically through creation by the author for himself. The works included <Work 1-DALI's Expression>, (Work 2-MAGRITTE's Expression), <Work 3-ERNST's Expression>, <Work 4-Chello>, <Work 5-Zipper> and <Work 6-A Drop of Water>.

Results of the study, which were obtained through manufacturing the works, can be described as follows.

First, senses of modern formation and line were emerged by applying the materials and images frequently shown in surrealist paintings to human bodies.

Second, characteristics of the Art Make-up for artistic image were revealed, not limited to colors, expressions, subjects, techniques and materials.

Third, an unlimited, interesting expression of the Make-up using a variety of materials became possible by applying extremely subjective, surrealist paintings and images in various ways.

This paper proposed that the Make-up should be a artistic image itself, not as a secondary means for an obvious expression of personal beauty which has been maintained since the ancient times.

The researcher tried to put the Art Make-up into our daily life by making creative works which viewed and psychologically enjoyed by people and by proposing the works as sort of image theme to the spectators.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현대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화됨에 따라 문화예술 전반에서 기존의 이상적인 미의 기준에 맞추는 획일화보다는 개인의 독특하고 창조적인 개성표현을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예술의 한 분야인 메이크업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현대 아트 메이크업은 어떤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 인간의 내면 깊숙이 자리잡은 무의식 세계를 표출해 내고 있으며 이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의 작품뿐만 아니라 대중에게까지 나타나고 있다.

초현실주의자들은 행위와 작품활동을 통해서 리얼리티에 대한 새로운 욕구를 창조하려 했던 것이다. 그들은 비합리성과 불가사의를 이용해서 의식적인 사고 과정을 분열시키고 잠재의식의 활동을 해방시키려고 하였다. 그 결과 그들은 현대 예술에 깊은 영향을 미친 새로운 감수성의 형식을 창조하였고 그들의 영향은 최근까지 중요한 전위예술작품의 핵심에 이르렀다. 메이크업이 다양화시대로 전환되면서 아트 메이크업 변화과정에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소들 중에서도 각 미술양식에서 나타났던 조형상의 형태 및 색채는 현대 아트 메이크업의 독특하고 개성적인 창의성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종래의 예술 형식을 부정하고 미지의 영역인 무의식의 세계에서 새로운 창조의 가능성을 추구한 초현실주의는 20세기 현대 조형 예술의 표현 영역을 넓히는데 커다란 원동력이 되었으며 독특한 개성을 추구하는 현대 아트 메이크업 발전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므로 최근까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아트 메이크업의 초현실적 이미지 및 표현양식의 특징은 현대 아트 메이크업에서 연구할 의미와 가치가 높다고 여겨진다.

이로써 단순한 화장의 의미를 벗어나 예술적 이미지 표현의 한 형태로 메이크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부수적인 외적 표현수단의 의미에서 벗어나 주된 하나의 창조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한 모티브로 그 의의를 가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후 하나의 회화이념과 대중과의 만남을 꾀하고 예술적 표현세계를 풍요롭게 하며 생동감 있고 도전적이며 항상 변화를 추구하는 힘있는 현대 아트 메이크업을 개발함에 그 목적을 두었다.

또한 중요한 예술사조의 하나인 초현실주의를 중심으로 발생과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초현실주의와 현대 아트메이크업과의 상호연관성을 살펴봄으로써 한 시대의 예술이 아트메이크업 테마의 원천으로써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는 것도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초현실주의적 사조가 현대예술, 특히 회화, 광고, 사진, 복식과 같은 비주류적인 부분에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규명하고 초현실주의의 입장에서 표현한 아트메이크업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본인의 작품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초현실주의적 아트 메이크업을 표현함으로써 메이크업 또한 예술의 사조와 흐름을 함께하는 예술적 존재라는 사실을 재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1-2. 연구내용과 방법

1) 연구내용

- 현대 예술 사조 중 시각화 대상으로 삼은 초현실주의 사조의 정의, 역사, 그리고 특징들을 알아본다.
- 메이크업을 정의, 분류하고 아트 메이크업 및 현대 아트 메이크업 경향을 알아보았다.
- 이와 같은 이론적 배경에서 얻은 결과를 본인의 작품을 통해 결과물로 제시하였다.

2) 연구방법

- 문헌을 통해 이론적 고찰을 하였다.
- 작품제작을 위한 초현실주의 작가를 분석하였다.
- 선별된 작품을 모티브로하여 작품을 제작하였다.

2. 초현실주의 회화의 대표적 기법

초현실주의 회화의 표현기법은 두 경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연성의 발견으로 발전된 Automatism과 오브제의 활용으로 발전된 Depaysement으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전자는 무의식의 세계를 탐구하기 위한 자연발생적 자동기술의 방법인 Automatism으로 표현된 추상적 초현실주의, 후자는 현실적 사물들을 본래의 일상적인 질서에서 떼어내어 낯선 장소에서 조합시키는 Depaysement이 주로 사용된 사실적 초현실주의라고도 한다. Automatism의 대표적인 화가로는 M.Emst, A.Masson, J.Miro를 들 수 있고 Depaysement에서는 R.Magritte와 S.Dali를 들 수 있다. 연구자는 Depaysement의 기법을 아트 메이크업에 적용해 보고자 하여 이에 대한 이론을 고찰하였다.

Depaysement이란 용어의 본래 의미는 사람을 이상한 환경 속에 둔다는 뜻으로 일반적인 정의는 현실적 사물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 본래의 용도, 기능, 의미를 현실적 문맥에서 이탈시켜 그것이 놓여질 수 없는 낯선 장소에서 조합시킴으로써 초현실적인 환상을 창조해 내는 기법이라 할 수 있다.¹⁾

Depaysement은 전치, 전위법으로 번역되는 프랑스어로서 본래는 나라나 정든 고향을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어떤 물체를 본래의 일상적인 질서에서 떼 내어 전혀 그 사물의 속성과는 다른 엉뚱한 곳에 놓음으로써 보는 사람의 심리적 쇼크를 주게 하는 초현실주의 대표적인 양식이다.²⁾

심리적인 쇼크를 통해서 보는 이의 마음속 깊이 유폐되어 있는 무의식의 세계를 해방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심리적인 효과를 바탕으로 한 불합리한 성격끼리의 만남, 즉 이질적인 사물들끼리의 비현실적인 만남으로써 새로운 연관성으로 교체되거나 혹은 연결되기도 한다.³⁾ 즉, 사물에 대해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형상을 표현함에 있어 서로 관련 없이 보이는 대상들과의 연결은 비논리적이며 비현실적인 느낌을 창출하게 한다. 초현실주의자들에게는 그런 상반된 개념의 의의

1) 계간미술 편, 「현대미술용어사전」, (서울 : 중앙일보사, 1981), p.490.

2) 김해성, 「현대미술을 보는 눈」, (서울 : 열화당, 1985), p.79.

3) 유덕룡, 「초현실주의 회화에 있어서 형상성과 비형상성에 관한 연구」, 계명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p.29.

성과 이질적인 느낌이 일반적인 미적 상태가 되는 것이며 그들은 그것을 묘사하기 위한 기본적인 주요방법으로 Depaysement의 원리를 사용하였다.⁴⁾

초현실주의 선구자적인 C. de Lautreamont의 시(詩)에 “해부대 위에서 우산과 재봉틀의 만남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다”의 구절에서 수술대-우산-재봉틀이라는 사물들을 결합시킨 것에 초현실주의자들은 열렬히 호응하였다. 이 시구절은 사물과 사물의 상식적인 관계를 타파했고, R.Magritte도 자신의 작품에서 Depaysement를 가장 적절히 사용하여 이를 실현하고자 했다.⁵⁾ 이 위치전환으로 사물은 일상적 용도에서 벗어나 그 현실성이 소멸되고 동시에 사물의 일상적인 의미도 소멸되어 무의미의 차원을 형성하면서 사물 본연의 숨겨진 특성이 나타나게 된다.⁶⁾

Depaysement는 사진과 같이 정밀하고 아주 실질적인 현상을 표현하는 사실적 초현실주의 경향으로 표현된다. Hafman은 사실적 초현실주의를 극단적으로 정확한 사물의 사실적인 묘사가 환상적인 작품의 전체 분위기를 한층 북돋아 주는 것이라고 설명하며⁷⁾ M.Ernst는 서로 관련 없는 여러 요소들을 결합하여 미지의 세계를 만드는 환각적 유발과정으로서 Collage 기법을 이용하여 호나상이나 환각적인 세계의 이미지를 Depaysement기법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S.Dali 역시 편집광적 비판방법을 구체적인 비합리성의 영상들을 가장 정열적으로 구체화시키는 점을 착안하여 물체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과장하는 등의 화면을 구성했다.⁸⁾

Depaysement는 꿈속에서 밖에 볼 수 없는 현실 세계에서는 조화될 수 없고 양립할 수 없는 것이 함께 공존하는 환상 세계를 그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통상적으로 M.Ernst의 Collage로부터 발전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상황을 Pierre Reverdy는 상호 거리가 먼 두 개의 현실을 접근시킬 때 두 개의 현실의 관계는 거리가 멀고 효과가 적절한 것일수록 이미지는 강렬해질 것이며 더 한층 감동적인 힘과 시(詩)적 현실성을 띠게 된다고 Depaysement의 원리를 설명하였다.⁹⁾

일상적인 의미에서 이해되는 사물이 본래의 일상적인 의미를 상실하고 전혀 다른 의미와 느낌으로 환기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것은 보는 이로 하여금 심리적인 충격을 일으켜 보는 사람의 마음속 깊이 유폐되어 있는 무의식의 세계를 해방시킬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미적 상태가 되는 것이며 그들은 그것을 묘사하기 위한 기본적인 주요방법으로 Depaysement의 원리를 사용하였다.¹⁰⁾

R.Magritte의 <불안한 날씨>, G.Chirico의 <철학자에 의한 정복>은 Depaysement에 의한 작품으로 사람보다 큰 과일이나

오브제들이 출현하기도 하며, 수평선위에 여성의 토르소와 악기 그리고 의자가 떠있는 장면은 무의식을 표출하는 공통의 표현방식으로 꿈과 환상성을 추구하기 위한 방법이다.¹¹⁾

공간에 대한 재해석, 사물들의 결합, 물체의 변형과 왜곡 등 Depaysement의 다양한 이미지의 표현은 사물을 하나의 실제적 관점에서 보는 것을 초월해서 사물 자체에 오는 새로운 상상력을 추구하였으며 단순한 재현의 이미지라기보다 다양한 이미지의 산출을 지향하는 것이다.

M.Ernst의 시적인 환상의 세계, S.Dali의 편집광적 비판방법 (Paranoiac Critical Method)¹²⁾에 의한 회화세계, R.Magritte의 일상적인 것과 비일상적인 것의 이미지가 결합하는 회화세계가 여기에 해당한다.

초현실주의의 이러한 두 가지 대표적 표현기법은 이성적인 지배체제하의 기존예술의 형식성에서의 제반 문제를 넘어서 인간 그 자체, 심지어 이성을 넘어서 존재하는 새로운 리얼리티의 표현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보다 발전적인 방향이 연구되어 이후 현대미술과 다른 조형예술 예술분야에까지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초현실주의 회화의 대표적 작가와 작품을 고찰하여 보았다.



Fig.1, <Oedipus Rex, 1922>
by M.Ernst Marx Ernst, p.253.



Fig.2, <LE VIOL, 1934>
by R.Magritte
현대세계미술전집(22)



Fig.3, <CONSTRUCTION MOLLE AVEC HARICOTS BOUILLIS, 1936-37> by S.Dali
현대세계미술전집(25)

4) 박경선, “현대패션에 나타난 초현실주의적 표현”,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p.10.

5) 정병관 외, 「현대미술의 동향」, (서울 : 미진사, 1987), p.208

6) 정미영,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초현실주의 복식양식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p.31.

7) 박경선, Op.Cit, p.10.

8) 정미영,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초현실주의 복식양식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p.31.

9) 기수암, “초현실주의 작가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p.10-11

10) 김정숙, “초현실주의 미술사조가 현대패션에 미친 영향”,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p.8.

11) 최철, “초현실주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작가를 중심으로-”, 관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p.14.

12) 편집광적 비판방법 - 1930년 S.Dali에 의해 주장된 초현실주의 회화의 한 방법, 사실적으로 치밀하게 그린 일상적인 사물이다 아주 의외의 환상적인 해석을 이층 이미지로써 잠재의식의 세계를 표출시키는 것, 1930년경 달리는 이른바 편집광환자의 환각증상을 작품제작에 이용하였다.

3. 초현실주의 아트 메이크업과 바디 페인팅

메이크업은 분류하는 사람마다 다소의 차이가 있으며 거기에 해당하는 용어도 비슷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다. 김영경의 “이집트 장식문양을 응용한 현대 아트 메이크업연구(1995)”에서 보면 메이크업을 크게 분장, 아트메이크업, 뷰티메이크업으로 나누고 있다. 분장¹³⁾에는 캐릭터(Character) 메이크업과 쇼스테이지(ShowStage) 메이크업이 해당하고 아트 메이크업에는 모드(Mode) 메이크업과 환타지(Fantage) 메이크업, 바디(Body) 메이크업이 해당하고, 마지막으로 뷰티메이크업에는 스트리트(Street) 메이크업, 패션(Fashion) 메이크업, 결혼(Bridal) 메이크업, 필름(Film) 메이크업, 포트레이트(Portrait) 메이크업이 해당한다고 되어 있다. 즉, 여기에서는 분장의 의미를 어떠한 목적(장소, 인물..)에 맞도록 메이크업을 행하는 경우에 사용했고 일반적으로 화장의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실용메이크업을 뷰티메이크업으로 명명했다. 그 외에 작가의 심미적, 개성적 추구의 작품활용에 해당하는 메이크업을 아트 메이크업이라고 명명했다.

아트 메이크업의 개념은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작품세계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예술세계를 표현하는 메이크업 전부를 칭하고자 한다.

아트 메이크업은 인간의 육체를 재(再)조형한 예술로써 새로운 현상, 새로운 추구, 새로운 현실성 등을 알리는 것(Fig.4)으로 색이나 표현, 주제, 기법, 재료 등에 구속을 받지 않고(Fig.5) 단지 예술적 이미지만을 중시한다.(Fig.6)

여기에는 특별한 회화기법으로 인체에 디자인한 것도 있고 또 한 원래의 구조-눈, 코, 입-의 형태를 의식하지 않는 상태에서 새로운 시점에서 보다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형태로 디자인한 것도 있다.(Fig.7) 이러한 디자인의 계획은 피카소의 큐비즘적 화풍의 영감에 의한 창작과 같은 예술적이고 창조적인 것이다.

아트 메이크업은 어떤 테마를 가지고 다양한 문양이나 추상적 화법, 사실적 묘사(Fig.8) 빛의 음영처리, 사진기법을 이용한 연출(Fig.9)등으로 표현하여 작품으로 승화시키며 또한 이를 대중에게 전달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시대가 발달하면서 분장이 과거와는 달리 사실적이고 완벽하게 하는 분장을 요구하게 되었고 분장이 발달하면서 분장의 장르 또한 다양화되면서 전문화되었다.¹⁴⁾

현대에 표현되고 있는 아트 메이크업의 경향을 보면 단순한 인간의 모습으로부터 탈피하려는 욕망(인간이 아닌 동물이나 물체가 되려는 욕망)으로부터 비롯된다. 이는 시간에 순응하고 시간의 침식과 화해하려는, 또한 무엇인가 스스로 내면에 그려 넣고, 가라앉히고 흡수시키려는 자신의 이미지와 경쟁하려는 이미지이다. 즉, 가공적인 예술형태의 욕망에서 아트 메이크업은 비롯된다.¹⁵⁾

기존 작품의 예를 제시해 본다면, Fig.10은 인간의 모습이 아닌 동물의 형상이 되려는 욕망을 표현한 'VERA LEHNDORF

F·HOLGER TRULZSCH'의 작품이고 Fig.11은 'JOS BRAND S'의 작품이며 Fig.12에서는 인간의 원래 의미에서 벗어나 물체의 일부가 되려는 욕망을 그려 넣었고 Fig.13은 모델 얼굴 자체가 물체로 표현되어진 작품이다.

그리고 현대에 올수록 Fig.14처럼 사이버적인 경향이 강해지고 있으며 기술과 재료의 발달로 인하여 특수효과를 응용한 아트 메이크업도 보여지고 있다.

이상과 같이 아트 메이크업의 작품들을 살펴보면 인체에 행해지는 메이크업으로 색이나 표현, 주제, 기법, 재료 등에 구속을 받지 않고 단지 예술적 이미지만을 중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은 많은 예술사조와 함께 하고 있으며 특히 초현실주의적 경향의 작품이 대부분임이 드러났다.



Fig.4, <Variationen zu Jugendstilormamenten> by Verfasser
S CHMINKE · M ASKE
KORPERKUNST,
p.43



Fig.5, <Begriffen> by Verfasser
S CHMINKE · M ASKE
KORPERKUNST,
p.126.

Fig.6, <Pierrot variazione due>

by Stefano Anselmo
IL trucco e la maschera,
p.42.



13) 동아 새국어사전(1989)에서 '분장(扮裝) - ① 몸차림 · 옷차림을 매만져 꾸밈. ② 배우가 작품 속의 인물의 모습으로 옷차림이나 얼굴을 꾸밈. 또는 그 모습· 여기에서는 ②의 의미

14) 김영경, 「메이크업·분장이론교재」, (충주문화사, 1998), p.173-174

15) Ibid., p.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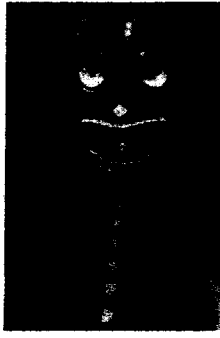


Fig.7, <La corriera>
by Stefano Anselmo
IL trucco e la maschera,
p.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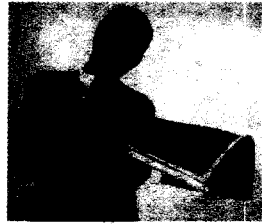


Fig.8, <Mimicry-Dress-Art>
by Vera Lehndorff · Holger
Trulzsch
VERUSCHKA, p.22.



Fig.13, <La regina di
cuori>
by Stefano Anselmo
IL trucco e la
maschera, p.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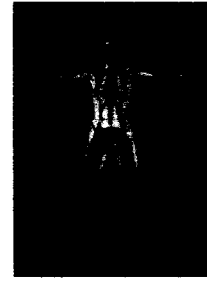


Fig.14, <I am the
image>
by thomas oswald
Body Paint portfolio
(VOL.01), p.25



Fig.9, <Signs and
Animals>
by Vera Lehndorff ·
Holger Trulzsch
VERUSCHKA, p.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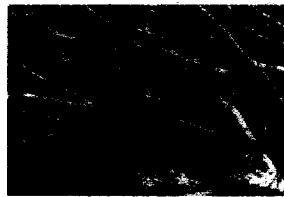


Fig.10, <Signs and Animals>
by Vera Lehndorff · Holger
Trulzsch
VERUSCHKA, p.47.



Fig.11, <CAT> by Jos
Brands
AIRBRUSH AND
MAKEUP, p.47.



Fig.12,
<Peterskirchen,
Spetse, Paros>
by Vera Lehndorff ·
Holger Trulzsch
VERUSCHKA, p.17.

아트메이크업의 한 장르인 바디 페인팅에 도입된 초현실주의 회화와 이념은 창조적이며 혁신적인 것을 요구하는 현대인들에게 뚜렷한 개성과 흥미, 요구를 더욱 유발시키게 되었다. 초현실주의적 바디페인팅은 기존의 환경에 대해 신선함과 가능성을 던져 주는 촉매제의 역할을 함으로써 일반인들에게 메이크업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의 성립을 가져오게 하였다. 초현실주의적 바디페인팅은 자연물이나 여러 다양한 사물들을 이용하여 오브제를 형성하는 경우, Trompe-l'oeil 기법, Automatism 등 표현양상이 다양하다. 그리고 이는 복합되어 표현되는 경우가 많아 보여진다.

먼저 Fig.15는 사물이 본래의 이상적인 질서나 배경, 분위기에서 이탈되어 전혀 그 사물의 속성과는 관련이 없는 엉뚱한 장소에 놓여짐으로써 변환된 사물은 초현실주의자들로부터 새로운 의미와 해석을 부여받아 또 다른 절대적인 존재의 하나로 우리를 앞에서 새롭게 지각됨으로써 그 가치를 갖게 되기 때문에 초현실주의 바디페인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오브제의 형상을 응용하여 바디페인팅의 일반적인 재료가 아닌 자연물이나 여러 다양한 사물들을 이용하여 모델의 한 부분이나 전체를 새롭게 형상화하여 표현함으로써 일반적인 바디 페인팅 형태에 대한 고정관념에 충격을 주는 표현방법이다.

Fig.16은 디자인의 형이나 색채, 선, 재질감의 대비로써 시각적인 착각을 일으키도록 유도하는 디자인의 테크닉을 이용한 바디페인팅이다.¹⁶⁾

이와 같은 기법을 이용한 것도 무의식 세계를 증명하는 초현실주의의 원리를 실현시키는 도구라고 볼 수 있으며, 초현실주의 작가들에 의해 자주 응용되며 새롭고 충격적인 흥미를 자아낸다. 신체와 바디페인팅 사이의 완전한 관계는 에로티시즘-그릇되고 유희적인 것을 내포한다. 따라서 이러한 것은 미학상, 꿈의 이미지에 따라 강한 성적 잠재적 요인과 시각적 장난을 초래하게 된다.

Fig.17은 인체의 곡선의 흐름에 따라 에러브러쉬로 작가의 무의식세계를 마음대로 표현한 작품이며 Fig.18은 바디페인팅용

16) 권혁미, "20세기 melle의 조형성 표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p.76.

수성물감으로 인체의 볼륨에 맞게 작가의 자유의지로 칠해진 작품이다. 이 또한 작가의 무의식세계를 자유롭게 표현했다는 면에서 초현실주의적 바디페인팅이라고 사료된다.

Fig.19, 20은 되고 싶은 사물과의 통일된 채색을 통하여 거리를 좁히는 작업으로 진행된 작품으로 이는 또 하나의 작가의 정신세계의 통로를 의미한다. 이 또한 정신적인 면에서 매우 초현실주의적인 바디페인팅 작품이라 하겠다.

바디페인팅과 바디페인팅에 쓰여지는 도구는 실제생활과 마음속의 세계 사이에 상호 관련되어 여성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면서 초현실주의적 은유의 중심을 차지하며 무한하게 발전할 수 있다. 젊은 전위적인 디자이너들에 의해 그 초현실적인 영감이 계승되어 새로운 메이크업 디자인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무의식적인 영감은 의식이라든가, 합리적인 지식이 한계에 도달하여 그것에 신비가 뒤섞일 때 비로소 드러나도록 예술로써 표현되는 것이다.¹⁷⁾



Fig.15, <Signs and Animals>
by vera Lehndorff · Holger Trulzsch
VERUSCHKA, P.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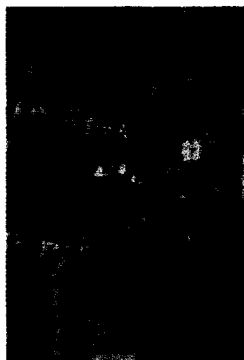


Fig.16, <hidden faces> by biba
Body Paint portfolio (VOL.01), P.74.



Fig.17, <BLUE> by Jos Brands
AIRBRUSH AND MAKEUP, p.45.

Fig.18, <natures children> 작가미상
Body Paint portfolio (VOL.01), P.76.



Fig.19, <Peterskirchen, Spetse, Paros> by Vera Lehndorff · Holger Trulzsch
VERUSCHKA, p.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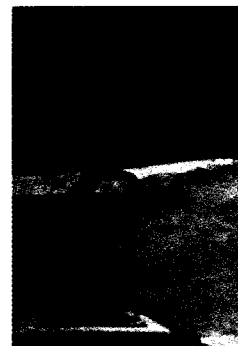


Fig.20, <Peterskirchen, Spetse, Paros>
by Vera Lehndorff · Holger Trulzsch
VERUSCHKA, p.74.

5. 작품

5-1. 작품제작의도 및 제작방법

본 연구에서는 메이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아트메이크업을 규명하고 초현실주의 회화작품이나 그에 대한 문헌을 통해 다양한 색채와 기법으로 아트 메이크업으로 변형시키는 작업을 하였다. 즉, 사람들의 시각과 의식에 자극, 관념의 충격, 에로티시즘, 보편적으로 추구해왔던 미적 이상을 떠난 이미지, 다양한 모티브의 자극적이거나 유머러스한 표현 등의 초현실적 표현을 아트 메이크업에 도입하였다. 앞서 고찰해 본 바, 현재 발표된 대부분의 아트 메이크업 작품들이 초현실주의를 바탕으로 제작되어지긴 했으나 구체적인 회화를 응용한 작품이나 초현실주의의 특징에 의거한 작품이 없는 것으로 보여졌다. 따라서 초현실주의가 발달하고 꽃을 피웠던 회화를 다시 분석하여 초현실주의적 아트 메이크업에 입각하여 제작함으로써 본 연구자의 작품세계를 만들고자 하였다.

초현실주의 대표적 작가인 S.Dali, R.Magritte, M.Ernst를 택하여 그들의 대표적 작품을 모티브로 하여 그들 작품에서 보여

17) Joland Jacobi, 「C.G. 융 심리학 해석」, 권오석 역, (서울 : 홍신문화사, 1994), p.183

주는 초현실적 표현을 도입하여 제작하였다. 모티브의 색상과 소재를 응용하여 인체의 곡선과 볼륨을 살려 배치하고 채색하였으며 그 외에 사용된 소재 또한 작가가 특히 많이 사용하는 소재를 선택하였다. 초현실적 표현을 시도한 작품은 위치전환이나 대체로 새로운 의미를 전달해 주는 기법으로 사물을 몸의 곡선을 살려 그려 넣거나 물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상황을 몸에 표현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Mannequin은 F.R.P로 제작되어져 있으며 사람의 피부와 다소 차이는 있으나 작품제작 시 인체에 표현한 것과 비교해 볼 때 큰 차이가 없었으므로 이를 선택하였다. 사용한 안료인 Acrylic color는 바다 페인팅용 수성물감과 거의 느낌이나 사용방법이 비슷하다고 보았고 mannequin에 채색하기에는 Acrylic color가 가장 적당하였다.

5-2. 작품분석

<작품 I>

·제목 : DALI's expression

S.Dali의 <기억의 고집>을 모티브로 하여 제작한 작품이다. 모티브 작품의 색상과 형태를 그대로 살리되 바탕인 인체의 곡선을 살릴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하였다.

<기억의 고집>에서의 대표적 소재인 '늘어진 시계'를 왼쪽 가슴에 배치하였고, S.Dalisk ManRay의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 '입술'을 인체 라인에 맞게 전체적으로 배치하였다. 초현실주의자들은 인간의 신체를 응용함으로써 초현실적 에로티시즘을 표현하고자 하였고 중요한 오브제로 '입술'은 바다페인팅에 있어서도 좋은 모티브가 될 것이라고 여겨졌다. 이때 입술의 모양은 '늘어진 시계'와 같은 끝을 흘러내리게 하여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었다. 이는 S.Dali가 잘 사용하는 기법인 Psychic anamorph로 기억의 주기 안에서의 굴절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욕망의 순간적인 재구성이라고 정의되는 식민주의적 사고의 논법에 의거한 것이기도 하다.

이 두 소재는 서로 연관이 없는 사물로써 이를 서로 배치시킴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신비감이 조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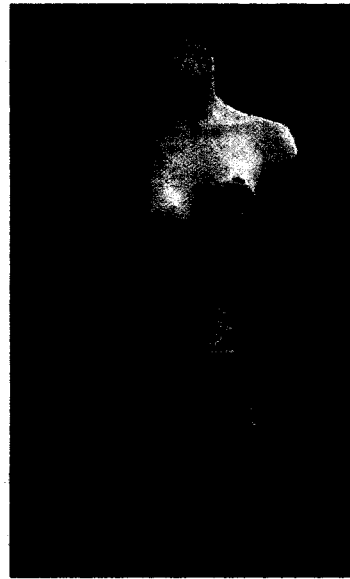


Fig.21, <그림 I>

<작품 II>

·제목 : MAGRITTE's expression

R.Magritte의 <잘못된 거울>을 모티브로 하여 제작한 작품이다.

모티브 작품의 사람의 한쪽 눈을 그대로 살려 인체의 가슴 양쪽에 각각 배치시켰다.

이는 현실적 사물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 본래의 용도, 기능, 의미를 현실적 문맥에서 이탈시켜 그것이 놓여질 수 없는 낯선 장소에서 조합시킴으로써 초현실적인 환상을 창조해 내는 Depaysement기법을 바다 페인팅에 구현해 본 것이다.

몸 전체를 코발트 블루로 칠하고 그 위에 눈동자 안에 떠다니는 구름을 몸 전체에 배치하였다.



Fig.22, <작품 II>

<작품 III>

·제목 : ERNST's expression

M.Ernst의 작품 <침묵의 시대>를 모티브로 하여 제작된 작품이다.

모티브 작품의 전체를 인체 가슴의 볼륨에 맞게 배치하였으며 목과 허리, 엉덩이로 연결되어지는 아름다운 여체의 곡선을 살릴 수 있도록 본인이 다른 선을 가미하여 작품을 제작하였다. 인체의 곡선을 따라 디자인이 되어 멀리서 보면 해지는 산길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몸 속의 꼬불꼬불한 장기 같기도 하여 보는 사람마다 각각 다른 세상을 만날 수 있게 되는데 신비감, 그리고 환상적 느낌을 가지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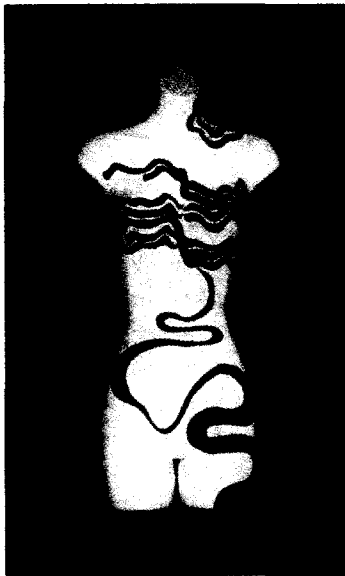


Fig.23, <작품 III>

<작품 IV>

·제목 : Chello

첼로를 인체에 옮긴 작품이다.

이는 물체의 절대적인 속성을 버리고 우연히 만나는 신비로운 경험의 예로써 R.Magritte의 <제논의 화살>에서 중력의 법칙을 변경하여 물질의 중량을 무시한 채 대상을 하늘에 떠오르게 함으로써 대상과 그것이 놓여있는 배경간의 이질적인 우연한 결합을 시도한 것과 동일하다.

첼로의 형태로 바디의 전체적 형태를 분할하여 새로운 모드를 제시하고 있는데 사람과 사물의 일치로 약기가 갖는 음악적 의미에 인간의 육체와 내면이 같이 합류되어지는 느낌을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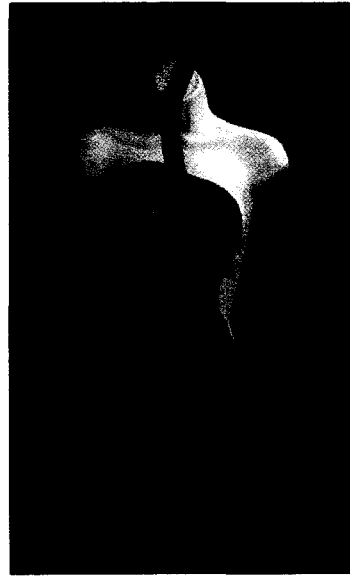


Fig.24, <작품 IV>

<작품 V>

·제목 : ZIPPER

지퍼가 내려간 왼쪽 부분을 까맣게 처리하여 그 부분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게 하였는데 이는 모순적 양의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유리잔과 우산의 미묘하게 균형잡힌 모순을 다룬 R.Magritte의 <해겔의 휴일>과 남자의 얼굴을 여체로 표현한 이중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R.Magritte의 <능욕>에서 그 역설을 살펴 볼 수가 있다. 언뜻 보기에는 진리에 어긋나는 것 같으나 도리어 그 속에 일종의 진리를 내포하고 있는 역설적 표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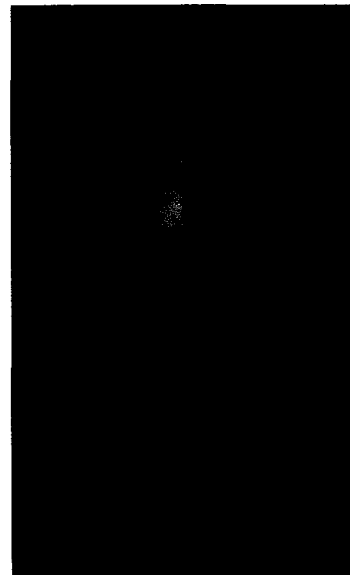


Fig.25, <작품 V>

6. 결론

본 논문은 오랜 역사성을 갖는 아트메이크업이 그 규명되지 않은 이중적 체계를 정립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여러 예술 사조 중 현대 아트 메이크업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 초현실주의의 생성배경과 표현기법, 대표적인 작가들 분석하여 이를 기초로 한 현대 아트 메이크업의 방향을 모색하고 초현실적 감각을 바디페인팅 작품으로 표현하였다.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현실주의 회화에서 많이 보여지는 소재와 이미지를 응용하여 인체에 구성한 결과 현대적 조형감각과 선 감각이 표출되었다.

둘째, 색이나 표현, 주제, 기법, 재료 등에 구속받지 않고 예술적 이미지를 위한 아트 메이크업의 특성이 표출되었다.

셋째, 극히 주관적인 초현실주의 회화의 이념을 여러 각도로 응용하여 다양한 소재의 메이크업과 흥미로운 표현방법으로 인한 무한한 창작의 가능성을 부여하였다.

아트 메이크업은 다양한 주제와 연출이 가능하고 작가의 개성을 추구하는 메이크업 분야이며 독특한 개성을 추구하는 현대에 있어서 아트메이크업은 그 발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여겨지고 또한 생활 속의 메이크업으로 그 위치가 중요해질 것이다.

20세기에 있어서 중요한 미술사조의 하나인 초현실주의와 현대 아트 메이크업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예술로서의 아트 메이크업 발전과 아트 메이크업 창작영역의 확대를 모색하고 궁극적으로는 창조적인 아트 메이크업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계간미술 편, 「현대미술용어사전」, (서울 : 중앙일보사, 1981), p.490
- 강대영, 「한국분장예술」, 서울:도서출판 지인당, 1999.
- 김덕록, 「화장과 화장품」 서울:도서출판 담계, 1997.
- 김민경, 「메이크업분장이론교재」, (충주문화사, 1998), p.173-174
- 김세환, 「한국토탈메이크업」, 서울:도서출판 서우, 1999.
- 김춘일, 「팝아트와 현대인」, 서울:열화당, 1989.
- 김희숙이은임 공저, 「메이크업과 패션」, 서울:수문사, 1996.
- 알렉산드리아, 「초현실주의 미술」 이일대 역, 서울:열화당미술선서, 1984.
- 오광수, 「추상미술의 이해」, 서울:일지사, 1991.
- 이민화·구영순 편저, 「향장품과 학업문」, 서울:신광출판사, 1996.
- 유성용 김수, 「美術事典(1)」, 서울:寒國美術年鑑社, 1989.
- 한명숙, 「마귀이슈 예술」, 서울:청구문화사, 1999.
- Bigsby, C.W.E. 「다다와 초현실주의」 박희진 역, 서울:서울대학교 출판부, 1987.
- Brands, Jos. AIRBRUSH AND MAKE-UP.Berlin:Kryolan GmbH, 1999.
- Freud, Sigmund. Die Traumdeutung. 「꿈의 해석」 김기태

역, 부산:선영사, 1995.

- Hughes, Robert. The Shock of the New 「새로움의 충격」 최기득 역, 서울:미진사, 1993.
- Joland Jacobi, 「C.G. 융 심리학 해석」, 권오석 역, (서울 : 홍신문화사, 1994), p.18
- Meuris, Jacques. Rene Magritte. Koln:Benedick Taschen, 1992.
- Neumeyer, Alfred. The Search for Meaning in Modern Art 「현대미술의 의미를 찾아서」 이경희 역, 서울:연화당, 1992.
- Perrie, J.L.편. L'Aventure De L' Art Au XXe Siecle 「20세기 미술의 모험 I,II,III」 김정화 역, 서울:API, 1990.
- Prisker, Palaela. 「진정한 신비와 시를 제시한 초현실주의의 환생」 이경석 역, 서울:서문당, 1990.
- Steele, Valerie. Womom of Fashion. Rizzoli, 1991.
- 곽미영,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초현실주의 복식양식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기수암, 「초현실주의 작가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p.10-11
- 김의권, 「광고 CREATIVE에 나타난 VISUAL의 초현실주의적 표현에 관한 연구 -국내의 인쇄 광고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김용철, 「초현실주의 사진에 대한 고찰」,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박경선, 「현대패션에 나타난 초현실주의적 표현」,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p.10.
- 서현수, 「시의 조형화 작업으로서의 복식디자인 연구 -비틀 소재로 한 한국현대시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유덕룡, 「초현실주의 회화에 있어서 형상성과 비형상성에 관한 연구」, 계명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p.29.
- 윤은숙, 「초현실주의에 있어 형상적 이미지 고찰 -본인작품을 중심으로-」, 부산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이나경, 「현대 여성의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장미숙,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네오아방가르드 경향에 관한 연구 -1990년대 후반 캐주얼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미영,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초현실주의 복식양식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p.31.
- 정영진 「Rene Magritte의 영혼과 현상에 관한 고찰」,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 조은별, 「20세기 화장문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최영경, 「한국여성의 화장문화에 관한 연구 -여성잡지 미용기사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허선옥, 「20세기 메이크업 아트 연구 -슈 우에무라와 일라나 하카비의 메이크업 아트를 중심으로-」, 관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강대영, <한국분장 연구소>, <http://www.koreamakeup.co.kr>.